

지금 여기가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중국 고도들의 유산들

박정희 지음, 『중국 고도를 거닐다: 대중문화와 도시경관의 길을 따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를 읽고

조명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조교수

I. 중국 고도를 연구한다는 것

한국학계가 국가사(國家史) 같은 거대역사에 대한 편향된 관심에서 벗어나 지역사나 도시사, 개인사 같은 미시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도시사나 지역사를 지역 내부자인 향토사학자의 전유물로만 간주하지 않고 거대역사의 획일성을 극복하거나 빈틈을 확인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학계의 인식은 더욱 경직되어 있었는데,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태 등의 기억에 힘입은 탓인지 공산당 일당독재 혹은 전제주의로 전제하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공간정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거의 국가 층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공간정치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경우도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조차도 중앙정치와 정책의 주도권을 절대화하면서 진행된다. 물론, 중국의 도시와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정치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은 현재 중국 도시들이 보여 주고 있는 인식적 변화를 경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장애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오롯이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일 터이다.

국가유기체론하에서 그 위상이 설명되었던 한국의 도시·지역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의 도래라는 요인으로 인해 생존의 단위로 재편되었던 것처럼, 중국의 도시·지역의 위상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자신의 도시사나 도시문화, 도시 정체성 등을 탐구하는 중국 각 도시들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서적이나 학위논문·소논문 등의 학문적 성과도 가파르게 축적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의 대형서점이 자기 도시에 대한 성과물들을 모아 독립된 서가에 배치해 놓은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일당독재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 도시·지역이 독립된 생존 주체로서 도시·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로이 생산하여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중앙집권적 체제가 중국의 과거를 설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주제어였다면, 지역·도시·분권 등은 중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이 기입되어야 하는 주제어인 셈이다.

『중국 고도를 거닐다』는 이 새로운 주제어들의 구체적인 대상, 텍스트로 고도(古都)를 선정한다. 책은 제1장 “중국 고도로 들어가기에 앞서”에서 책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그것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들이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재도시화하는 과정과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도시의 전체적인 지향성과 미래상의 일단을 고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책은 고도를 역설적 성격의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출발한다. ‘지금 여기’의 고도란 과거를 재현하는 듯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욕망과 필요를 기원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책의 뒷표지에 있는 “古都로 가는 길은 지금 흘리는 땀속에서 열리며 어느덧 미래의 고갯마루로 이어진다”는 글귀는 문학적 표현일 뿐 수사적 표현은 아니다.

저자 박정희의 전공분야는 중국역사가 아니다. 저자는 북경대학교에서 중국 당대문학, 당대문화를 전공분야로 삼아 10년간 수학을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고전(古典)·정전(正傳)의 생산과 학문체계의 수립과정을 연구했다. 저자의 학문적 배경을 소략하게나마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자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렵게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로 또다시 미래로 흘러가는 일직선적인 흐름으로만 이해하지는 않는 듯하

다.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일종의 서사인데 서사는 현재적 시점에서 출발하고 함목적적이고 체계적인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지만 역사의 선형성과 인과성에 대한 의심 즉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행위자들의 중층적 관계에 의해 재맥락화되는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고도의 복원과 재구성, 문화 기억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보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국가체제가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영토에 대한 국가의 통치성과 지배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력한 기제가 된다”는 기술 역시 이러한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중국 도시문화연구소’를 창설하여 중국 도시문화 연구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출발점으로 고도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내적 동일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책은 내적 동일성은 동일성, 유사성, 유비 등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차이에 의해 역설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복과 차이에 의해 내적 동일성이 역설적으로 구축되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고도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도시로서 많은 기억과 시간을 내장하고 있는 고도는 차이의 반복과 이를 통한 내적 동일성의 획득이 점진적으로 혹은 진자운동하며 구축되어 온 과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공간이다. 고도는 과거의 원형·원천·변치 않는 순수한 그 무엇에 대한 동경이나 기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원형의 복구·복원 혹은 재현을 항상 실패하게 만든다. 원천·원형에 대한 지식과 이것에 대한 선정 권력은 비대칭적으로 배분되어 있고 이렇게 독점된 지식은 문화자본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권력구조를 자연화하고 승인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지금 여기의 고도는, 원형·원천에 대한 재현을 정체성 회복과 연결하려는 각종 권력의 시도는 현재의 비대칭적인 권력구조의 재생산이나 폭로와 관계된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되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고도는 현재의 욕망들과 힘들이 충돌하면서도 원천·원형에 대한 욕망이 일종의 위장술로 작동하는 도시인 셈이다. 또한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있어 원형·원천의 복구·복원을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할 경우 도시 정체성은 자기 변형성을 상실한 완고한 구조체로 간주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퇴행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발지점에 공감할 수 있다. 이 책은 두 가지 상반된 사고를 타고 넘나들면서 고도라는 공간 위에서 전개되는 역설에 주목한다. 지금껏 언급한 것처럼 고도에 대한 두 상반된 태도 중 하나는, 과거를 상실된 노스텔지어나 이상향으로 상상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현재라는 시간은 이상적인 과거를 모방하고 지향해야 하는 타자, 그러나 운명적으로 과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교정의 대상이 된다. 또 하나는 전자의 사고를 대상화하면서 발생하는데, 이상적인 과거상에 깃들어 있는 전략을 관찰대상으로 삼은 채 과거를 현재의 요구·필요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할 재료로서의 유물, 사실로 간주하는 태도다. 그래서 책은 역사를 집단 기억이라는 용어로 치환하면서, “집단 기억은 뚜렷한 유대감을 조성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계시키는 도시 정체성으로 고양되는데 이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미래상이 역으로 투사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고도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과 강화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당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박물관, 기념문화제 등 각종 표상체를 동원하여 집단적이고 단일한 문화기억과 도시 정체성을 강조할 때 주변부로 밀려난 이질적인 것들 역시 일방적으로 은폐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동원한다”고 말한다. 결국, 도시 정체성의 자기 동일성은 현재와 과거의 유사성 혹은 지고지순하고 변치 않는 원형에 대한 순종에서 획득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요구·필요가 유일한 원천도 아니며, 오히려 현재와 과거가 상호 규제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차이가 생산·무마되는 양상이라는 타협과 협상의 긴장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책은 고도를 국가 층위의 인식과 도시·지역 층위의 인식이 조화·타협·갈등·충돌하는 지점으로 바라본다. 저자는 중국의 고도를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지와 국가의 기획력, 자본의 침투력 등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이 관계망에서 배제된 주변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표상해 내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라본다. 비록 도시가 독자적인 생존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시·지역은 내셔널과 글로벌, 로컬(local)이 다양한 양상으로 부단히 관계맺는 공간인데, 이 스케일 점핑(scale-jumping)이 복합적이고 수시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고도라는 것이다. 개항도시는 출발 자체가 글로벌과 내셔널의 충돌·교섭지점이었고 그에 따라 이

도시들에 대한 연구의 한 축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항도시에서 빚겨났던 대부분의 고도는 국가 층위의 기억이 지배적인 도시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 내에서 로컬이나 글로벌을 의식하는 경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는 개항도시가 경험하거나 제기한 층위 교섭 양상과는 다른 면모를 안개처럼 내보인다. ‘안개처럼’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은, 개항도시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배적 관점은 경제적 관점인 반면 고도는 역사나 기억이라는 정신적·인식적 문제를 환기하며 고도에 대한 이 책의 관점 역시 인문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추리자면, 경제적 관점은 숫자나 그래프 등 가시적이고 선명한 자료로 갈무리될 수 있지만 역사·문화·정체성 등의 인문학적 관심 영역은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대문학, 당대문화 전공자답게 이 책이 텍스트로 활용하는 분야는 폭넓다. 문학, 영화나 TV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기념건축물 및 기념문화제, 역사유적 복원 양상과 지향점, 문화경관과 도시계획 등 지금 여기의 고도가 도시문화 정체성 재구성을 위해 진행하는 거의 모든 실천 행위를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이 다양한 텍스트들을 통해 집단기억의 형성 양상, 집단기억 형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각종 공간 층위의 다채롭고 중층적인 관계들, 이질적인 주변 목소리의 개입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재구성되는 도시 정체성의 궁극적 지향점을 더듬고자 한다.

한국학계에는 중국이라는 넓은 공간을 중앙권력이 절대적인 단성적(單聲的)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국가 층위의 절대적 우세를 당연시하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여전히 유용하고 지배적인 관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영토적 균열 조짐에 예민하고 중앙 집권적 통제가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시대에 즉, 미래의 중국을 과거의 중국으로 고착시켜 이해할 때 적합한 것일 수 있다. 강력한 국가주의와 공존하는 형태의 로컬리티에 대한 실험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과 그 마무리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책의 관점과 출발점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 방식을 향해 던지는 질문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II. 고도 답사를 통해 그려낸 도시문화 지형도와 방향성

이 책이 밝아나가는 고도는 중국 6대 고도인 베이징(北京), 시안(西安), 뤼양(洛陽), 카이펑(开封), 난징(南京), 항저우(杭州)와 충칭(重慶)이다. 책은, 중국 역사상 통일왕조의 수도였거나 전국적이지는 않더라도 긴 시간 동안 존재했던 국가의 수도였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수도라는 과거 역사를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가장 활발하고 선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6대 고도를 연구대상 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힌다. 덧붙여 충칭은 6대 고도와 견줄만한 고도는 아니지만, 3개 왕조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가장 획기적으로 변모한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책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개항도시이기도 한 충칭을 포함한 것은 이후 개항도시와의 비교·대조 연구를 위한 시험으로서의 성격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이 7개 고도를 대상도시로 삼아, 각종 문화적 실천을 통해 대상도시가 경험한 거대한 변화, 전통의 발견을 통한 도시문화 기억과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 향방 등을 차례로 탐구해간다.

1장 “중국 고도로 들어가기에 앞서”는 중국 고도연구·도시연구의 가치와 의의, 연구방법론, 연구 목적 등을 다루면서 이 책의 서론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상적인 지점은 책의 출발점과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책의 저자는 이 책이 중국 고도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층위가 내셔널이나 로컬 층위로 고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내셔널-로컬 층위가 부단히 교호하면서 상호 규제·간섭한다는 지리학의 다중 스케일적 관점을 전유한다. 이로 인해 고도 같은 로컬은 내셔널과의 일방적인 위계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지 않으며 다중적인 층위들의 복합적 관계 등에 의해 역동적으로 맥락화된다고 이해한다. 이는 중국을 국가주도적·중앙집권적 사회로 규정해 왔던 기존의 시각으로 인해 발생한 인식적 싱크홀을 발견하고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이다. 또한, 집단기억의 형성뿐만 아니라 문화기억의 제도화 양상, 그리고 그것의 균열 지점을 살피기 위해 문학·TV드라마·영화 등의 문화매체와 건축·거리·유적 등의 문화경관, 그리고 다양한 시기의 도시계획 등을 텍스트로 삼는다. 적지 않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나 문화경관 등의 가시적인 표상체는 집단기억을 주로 재현하는 단성성(單聲性)을 주조로 하는 반면 문화매체 등은 단성성 이면으로 은폐되거

나 배제된 이질적인 목소리들을 드러냄으로써 균질성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다성성(多聲性)을 드러낸다고 구분한다면, 이 두 대조적인 성격의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다소는 숨가쁘지만 그만큼 풍족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인문학적 시도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것일 수도 있고 시도에 비해 그 결과는 다소 빈약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건축·경관 위에 문학·영화·TV드라마 등을 겹쳐 읽는 작업은 기존의 인문지리학과는 또 다른 세상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마다 도시 하나씩을 할애하는데, 2장은 “정치도시 베이징, 사회주의 수도에서 세계도시로”라는 제목으로 베이징(北京)을 다룬다. 이 책이 베이징의 위상을 특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7개 대상도시 중 가장 앞서 다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중국에서 특수한 정치적 위상을 가진 도시다.”라는 기술도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책에서 베이징은 중국 정치의 중심이며 베이징 문화는 중국 문화의 정수(精髓)다. 그래서 책은,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있는 중국의 우주관·세계관 등의 사상, 정치, 문화, 도시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총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한다.¹ 하지만, 서평자의 눈에 더욱 흥미롭게 들어온 점은 베이징을 단일한 성격의 공간이 아니라 이질성이 공존하는 중층적 성격의 공간으로 읽어 내면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원대 베이징의 도시설계와 현재 베이징의 도시 골격이 일치하고 있음을 첫 페이지부터 서술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병행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과거 역사를 활용했다는 점도 덧붙인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겹치기도 하며 역전되기도 한다. 곧이어 공간적으로는, 왕조국가의 중심공간인 궁궐, 성곽 등과 함께 후통(胡同)과 스허위엔(四合院)의 민간인 거주공간을 나란히 배치한다. 나아가 이 위에, 난뤄구상(南锣鼓巷), 귀쯔지엔(国子监)거리 등의 사례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과 내부인의 시선이 교차되는 양상 즉 시선 주체의 교차라는 문제까지 포

¹ 책의 저자 박정희는 또 다른 저서 『세계도시 베이징의 공간기억과 문화재현』(글로벌콘텐츠, 2012)에서 베이징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개 놓는다.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꼭지점을 각각 별개로 논의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관점, 기술 방식과 직결된다. 이것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가령, 1949년부터 현재까지 70여 년 동안 베이징은 195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2009년)에 각각 ‘베이징 10대 건축’을 선정하는 행사를 벌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10대 건축을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각 시대의 정치성, 지배문화, 문화기억과 그 변화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베이징의 주요 주거공간이었던 후통의 스허위엔이 신중국 건립 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따자위엔(大柵院)으로 변모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산당 간부와 지식인의 베이징 입성을 위한 따위엔(大院)이 건설되는 양상을 살핀다. 비록 도시개발로 후통과 스허위엔이 현실공간에서는 소멸되고 있었지만 대중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중요한 공간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면서, 대중문화를 통한 형상화 내용의 변화를 훑는다. 따위엔이 베이징의 대표적인 문화표상체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된 것은 대중문화 덕분이라면서, 따위엔 문화는 라오베이징(老北京)의 전통문화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혁명문화였음을 보여준다. 따위엔에 거주하는 혁명간부와 지식인은 신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량의 실현자였으며, 신정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생활의 이상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따위엔 문화의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깊이 받아 그것을 실천했고(인간), 이런 실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은 따위엔이었고(공간), 이러한 변화는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아닌 개체가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변모되는 혹은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공간을 점유해 가는 변화를 의미한다(시간)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꼭지점이 상호 연결되는 양상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중국 고도들을 밝어나간다.

“시안, 문화고도에서 국제와 대도시로”라는 제목으로 시안을 다루는 2장에서는 도시 층위의 역사경관 복원사업과 국가 층위의 신 실�크로드 구상의 결합, 중국식 세계도시의 성격과 지향점을 살필 수 있다. 책은, 시안이 서부 창조도시로 지정되는 동시에 성당(盛唐)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도시로 규정됨으로써 국가적 층위가 아시아라는 권역(region)적 층위로 고양되고 있음을 보여 준 후, 이렇게 고양된 미래의 결과가 ‘국제화 대도시’라는 용어로 집약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국제화 대도시 구상의 실천은 국가 층위의 청사진과 함께 도시 층위의 청사진을 통해 확정되는데, 이때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지목된 것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다. 태평성세, 활발한 국제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성당문화를 가무극 〈몽회대당(夢回大唐)〉과 거리 다탕통이팡(大唐通易坊) 등으로 재현함으로써 도시가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가 이미 과거에 성취했던 것이었음을 확인시키고자 함을 기술해나간다. 시안의 역사문화 유산 복원 자체가 미래 욕망의 성취를 의미하게 된다. 이 즈음에서 역사적 뿌리가 풍성함을 강조하면서 트랜스 시스템사회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왕후이(汪暉)의 『아시아는 세계다』가 시안의 대명궁 국가 유적공원이나 대당부용원 위에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건 서평자만이 아닐 것이다.

책은, 베이징에 대한 기술방식과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이질적이고 이면적 목소리를 발견해낸다. 책이 발견한 것은 특이하게도 락그룹 헤이사(黑撒) 밴드다. 이 그룹은 산시성의 오페라 친치양(秦腔)에서 자기 락음악의 뿌리를 찾는데, 이들의 음악이 담고 있는 것은 지역 정체성에 대한 귀속감, 현대화에 대한 문화적 성찰, 지역민의 정서와 자유의지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향식 집단기억과 상향식 로컬기억이 충돌하거나 공유되는 양상에 대한 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4장은 “신홍 중공업 도시에서 역사문화도시로”라는 제목으로 뤄양을 다룬다. 중국이 초창기 중공업 우선 경제개발 전략을 세웠는데 이 전략은 중국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뤄양도 그런 도시 중 하나였다. 신홍공업도시로 지정된 뤄양은 과거 고도로서의 면모 대신 현대적인 공장의 중공업을 위주로 삼아 대규모 공업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책은, 신홍 중공업도시로 재편된 뤄양이 훼손된 고도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기획과 노력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를 신홍 사회주의 공업도시→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명한 고도, 기계공업 위주의 신홍 공업도시→국가급 역사문화도시, 유명한 고도와 관광도시, 중원 서부 교통허브 및 중심도시로 정리한다. 국가급 역사문화도시로 재정부되기 위한 재료를 과거의 역사 ‘허뤄(河洛)문화’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중문화와 문화경관 조성 등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펼쳐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허뤄문화를 지역문화 정체성이 아니라 중국문명의 장구한 역사와

변영한 문화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봉사를 통해 도시 정체성이나 위상을 정립하려는 기획과 사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위상 상실을 경험한 도시는 자신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거대역사와 현 체제·질서에 편입되려는 노력에 치중하게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5장은 난징을 통해 도시가 소환하는 역사와 국가가 소환하는 역사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난징은 역사문화도시인 동시에 난징대학살이라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책은, 중앙정부는 난징대학살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난징을 애국주의 교육도시로 재편하려 하지만, 난징시정부는 난징을 중화민국 시대의 화려한 도시문화를 가진 도시로 기억하려 하고 있음을 밝힌다. 난징대학살은 난징의 도시 이미지를 고통과 비극으로 고착시켰으며, 중앙정부는 이 도시의 고통과 비극을 중화민족 전체의 고통과 비극으로 확대하려 한다. 이때 난징은 고유명사를 지닌 도시가 아니라 제유의 대상으로 치환되는 기표 혹은 보통명사로서의 도시가 된다. 책은 중앙정부의 기획 맞은편에 시정부의 의지를 가져다놓는다. 중앙정부에 의해 상흔의 도시로 기억될 뿐인 난징을 민국시대의 화려한 문화가 각인되어 있는 도시로 상상하고 재현하기 위해 문학이나 영상물들을 활용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위세 탓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는 민국시대의 유산들을 방치하여 훼손시켰지만 명성곽, 중산대로, 프랑스 오동나무, 민국건축군 등의 가시적인 유산들 역시 이젠 도시를 대표하는 유력한 랜드마크로 재탄생되었다. 특히, 쇠락한 채 방치되어 있던 거리를 정비한 후 쑨원(孫文)이 난징을 중화민국의 수도로 선포한 1912년 1월 1일을 환기시키는 ‘난징 1912’를 창조해내는 시도는 복원을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예차오옌(葉兆言)의 『1937년의 사랑(1937年的愛情)』과 거량(葛亮)의 『주작(朱雀)』 그리고 장아이링(张爱玲)과 장헌수이(張恨水) 등의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난징을 거대역사로부터 구해내려는 시도를 고찰한다. 이들의 작품은 난징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화려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로 재현하거나 거대역사에 대한 저항과 개인 일상의 부각, 부재하는 아버·어미의 역할 대행 등을 그림으로써 개인사와 지역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그린다고 설명한다. 대상작품의 즐거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생략한 채 과감하게 글의 주제

로 건너뛴으로써 작품에 대한 세세한 이해는 한쪽으로 밀려나지만, 작품 분석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것은 그리 큰 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문학작품이 도시 난징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이 거대역사·집단기억의 건너편에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고도 난징에 대한 상상은 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책에 따르면, 여타의 고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도 난징의 재구성 양상 역시 몇 가지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소환되는 역사가 여타의 고도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역사라는 점, 문학적 상상과 현실적 구성의 상호관련이 긴밀하다는 점이다. 문학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난징 상상은 현실의 난징 도시상상과 기획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난징의 역사 재구성 양상은 새삼 흥미롭게 읽힌다.

6장 “장소기억과 문화산업의 공간화”는 카이펑을 통해 문화 창의산업을 활용한 문화전략을 다룬다. 신중국 성립 이후 급격하게 쇠락한 도시 중의 하나가 카이펑이다. 카이펑은 현대 공업도시, 근대화도시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정체되어 낙후된 도시로 머물러 있었다. 이에 도시 카이펑이 채택한 전략은 ‘문화를 활용한 경제활성화’였고, 채택된 콘텐츠는 북송(北宋)문화였다. 책은 북송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와 북송을 대표하는 문학예술인 사(詞)를 선택하여 청명상하원(清明上河園)의 공간 기획과 실경 공연예술 〈대송·동경몽화(大宋·東京夢華)〉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테마공원·실경공연 등의 문화관광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양상을 살핀다. 북송시대 수도였던 당시의 생활풍습과 문화경관을 재현하기도 하고 카이펑 역사의 흥망성쇠를 현재의 열정과 연결하여 공연하는 문화활동·문화경관을 통해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산업이 도시 이미지나 경제적 측면과 연결되는 양상을 살핀다. 고도로서의 역사는 현재의 카이펑이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유력한 돌파구처럼 보이며, 카이펑은 도시사의 문화적 재현을 통해 현재의 호흥을 과거처럼 고양시키려는 대표적인 도시로 이해된다.

7장 “도시문화와 문화 창의산업”에서는 항저우를 창조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로 그려낸다. 창조도시란 항저우의 문화정책에서 유력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창조도시란 개발보다는 보존, 과도한 이상보다는 현실, 경제주의보다

는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인문주의, 글로벌보다는 지역의 전통과 개성을 중시한다. 책은 항저우의 대표적인 문화창의산업으로 널리 알려진 <인상서호(印象西湖)>와 <송성가무소(宋城千古情)> 등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 책은 색채미나 규모 등의 관점으로 이 공연예술들을 읽지 않는다. 책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공연들이 항저우의 지역사와 민간전설을 토대로 하지만 지역 민속·전설·역사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석하며 전통의 이야기와 문화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무대화한다는 데 있다. 즉, 항저우 도시 정체성을 내포한 도시서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이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사·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서사로 변환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내셔널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서사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인상서호>는 항저우의 장소경관, 문화경관, 문화콘텐츠를 도시의 층위에서 결합시키고 구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구화와 지역화의 관계라는 문제를 지역 세계화²라는 방식으로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타의 고도가 내셔널 층위에 대한 고려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면, 항저우의 도시 이미지·정체성 재구성은 글로벌 층위와 교감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항저우가 고도의 역사를 활용하는 사례는 여타 도시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인상서호>를 모방한 실경공연이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뒤따른 이유나 한국의 여러 도시와 연구에서 관심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장 “도시문화의 중층성”에서는 21세기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충칭을 다룬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충칭은 경제성장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오묘하거나 기묘한 양태로 공존하는 도시다. 개발과 철거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특유의 도시문화와 역사가 남아 있어 신구가 병치, 공존하는 도시다. 그래서 중국 전체에 걸친 문제 중 하나인 도농이원체제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도시, 중국 현 상황의 제유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 책이 6대 고도

² 박지완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지역화(Glocalization, 세방화, 지구지역화)는 현지화를 통해 세계화를 강화하는 양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역세계화는 이와는 정반대 양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박지완 교수가 사용하는 용어의 적합성 여부는 차치하고, 서평자 역시 두 현상을 구분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다.

와 함께 충칭을 다룬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의 수도라는 시간적 여행이 각 도시들을 현재라는 시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현재라는 지점에 정박시키는 장치 즉 고도이면서도 현대의 급격한 변화를 대변하는 도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로 충칭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싶다. 구성상으로 볼 때, 충칭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고도들을 현재라는 항구에 정박시키는 닻으로 읽힌다.

충칭의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면서도 이 책이 초점을 맞추는 지점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도시계획과 역사적 문화경관 등을 통해 중앙정부는 임시수도 시기의 항전문화를 부각한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홍암(紅岩) 문화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국민당에 대한 투쟁 등을 해방탑, 홍암혁명 기념관, 자즈동(渣滓洞) 등의 경관을 통해 고취하여 국가주의를 고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서 연유한 영화나 TV드라마 등도 반복해서 생산되면서 충칭은 홍암문화의 도시로 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이 책은 이러한 국가기억에 포섭되지 않는 로컬기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양칭(楊庆)의 영화 <회귀영웅(火锅英雄)>은 충칭의 역사적 장소와 현대적 문화경관을 단절적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 대신 이 둘을 결합하여 현대 근대도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역사를 발견해낸다. 특히 이 영화는 충칭의 개항사를 재인식하기 위한 돌파구로 이 도시의 특정 장소인 ‘바이상제(白象街)’ 등을 활용한다. 또한, 루오위(罗渝)의 『실종된 상칭쓰(失踪的上清寺)』는 추리식 구성을 통해 지역 역사, 경관에 대한 회고를 진행함으로써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한 강제적 망각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 밖의 여러 대중문화들이 거대역사가 삭제해버린 기억들, 이를테면 지역의 자연경관, 충칭인의 기질과 분위기,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대인의 감정 등을 그려 낸다. 이와 같은 서술이 거대역사, 국가주의에 압도된 집단기억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도시 내부인인 자신을 도시의 새로운 주체로서 재정립해보려는 시도인 것은 자명한 것이다.

III. 『중국 고도를 거닐다』 혹은 한국 중국학의 과제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은 중앙중심적·국가중심적 통치체제를 등에 업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와 문화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역·도시에서 모색하는 방향적 선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적 전통문화와 유산을 재발굴·재인식하고 도시의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의 또 다른 발현 양상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 지향점이나 전제가 국가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향하거나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의 상황과 닮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이 책이 갖는 의의 중 하나도, 중국 고도의 현대적 정체성 재구성 양상을 다양한 공간 층위의 교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가역사와 로컬역사의 불일치, 이질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의 출현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국가주의라는 지배적이고 유력하지만 둔탁한 도구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성·이질성을 문화·공간적 측면에서 확인시켜 준다.

국가주의라는 시각 혹은 이데올로기를 충분한 도구로 만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쩌면 경제적 관점이 과도하게 우세했던 탓일 수 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고 이를 G2의 두 국가와 각각 연결지음으로써, 그리고 환금가능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지역적·도시적 차이를 배제하고 획일화함으로써,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한국사회나 학계의 관점은 도시별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 양상의 차이에 무관심해졌을 수 있다. 유력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지적 게으름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 이 책은 도시·지역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다채로운 현재를 펼쳐 보인다. 또한, 인문학에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인문학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문화적 영역이 경제 영역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대할 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불편의 정체는 몇 가지로 나눌 것이다. 하나는 주로 전문연구자가 느끼는 불편이다. 연구대상의 영역과 통용되는 방법론의 경계가 분명한 기존 분과학문의 시선에서 볼 때, 문

학·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역사·도시(계획)·건축·경관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책이 다소는 낯설 것이다. 또한 문학·문화연구와 지리학 등의 각종 방법론들을 전유하는 방식이 다소는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싶다. 나아가 어쩌면 문학·문화를 텍스트로 삼아 문화경관이나 도시 정체성·이미지, 로컬리티를 탐문한다는 시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비전문가가 느끼게 되는 불편이다. 일반독자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작품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작품 해석을 위한 배경지식이나 기본 내용을 제공하는 데 불친절한 이 책이 버석거리는 뉘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서평자는 전문연구자를 위한 전문서적과 일반대중을 위한 대중서 사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교양서가 많이 빈약하다고 본다. 전문서와 대중서 사이의 책을 편의상 교양서라고 한다면, 이 『중국 고도를 거닐다』는 전문서의 성격이 강한 교양서일 수 있다. 사진이나 도판 등의 시각적 자료가 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책의 교양서적 성격을 강화한다.

이 책에 대한 두 가지 불편은 교양서가 감내해야 할 숙명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분과학문 분야의 폐쇄성이 분야별 전문성의 부가적 속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방법론의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진리나 지식을 고답적으로 답습하는 현상향을 용인해주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뒤따르는 자, 모방이나 모작을 하는 자일수록 폐쇄적 이니까 말이다.

책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때로는 중국 고도들의 재구성 양상을 현상적이고 평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학계에서 로컬리티 연구가 일천하다는 사실이나 외국학의 숙명 같은 것이 방법론을 정교하게 구축하지 못한 핑계가 되지 않는 터이기에,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로컬리티 연구의 한쪽 외진 구석에서 서 있는 서평자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책의 저자를 신뢰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을 도구화하지 않기에 더욱 깊어 가는 학문(중국학)에 대한 애정, 지금 여기의 호흡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통해 학문(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공헌하려는 자세를

저자의 책들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0년 10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7일

참고문헌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정희. 2012. 『세계도시 베이징의 공간기억과 문화재현』. 글로벌콘텐츠.
- _____. 2020. 『중국 고도를 거닐다: 대중문화와 도시경관의 길을 따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치완. 2020. “지역-로컬 지식의 재건 운동과 지역세계화의 의미.” 『현대유럽철학연구』 56, 275-320.
- 왕후이 저. 송인재 역. 2011.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 르페브르, 앙리 저.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